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WSJ: 연준 부의장, “고금리 정책 오래 걸릴 수 있어”
- Bloomberg: IMF, 미국의 지출과 부채 증가에 경고 강화
- WSJ: 미국 경제 앞으로 상승한다
- Bloomberg: 새 직장에서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최저 임금 급등

[미국 금융]

- Bloomberg: 지난 1년간 달러 계속 상승세... 금리 인하 보류 탓
- Bloomberg: 월가 전문가들, “주식 하락, 매도 압력 리스크 보여준다”

[주택]

- Bloomberg: 8월 이래 미 신규주택 건축 건수 최저치 기록
- WSJ: 베이비부머 큰집 구입했는데 줄이지 않는다

[오일]

- WSJ: 월가, “OPEC+가 유가 100달러 사태 막을 것”

[세계 경제]

- WSJ: 세계 경제 회복세지만, 빈곤국들은 더욱 뒤쳐져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AMD, AI PC용 칩 출시 ... 엔비디아 및 인텔과의 경쟁 대응
- CNBC: UnitedHealth, 사이버 피해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WSJ: Fed Vice Chair Jefferson: Rates Could Be High for Longer **연준 부의장, “고금리 정책 오래 걸릴 수 있어”**

- 연준 부의장인 Philip Jefferson은 인플레이가 쉽게 둔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 그는 동시에 인플레이 압력이 지속되는 경우 현재의 제약적인 입장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IMF Steps Up Its Warning to US Over Spending and Ballooning Debt **IMF, 미국의 지출과 부채 증가에 경고 강화**

- IMF는 화요일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비판했는데, 선진국 중에 미국의 최근 두드러진 경제 성과는 부분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못한 재정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 구체적으로 IMF는 “미국의 최근 놀라운 경제 성과는 확실히 인상적이며 글로벌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라면서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재정 입장을 비롯한 강력한 수요 요인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 미 연방정부의 과도한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글로벌 자금 조달 비용을 키우면서 세계의 장기적인 재정 및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위험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Bloomberg 기사

WSJ: 'Envy of the World'—U.S. Economy Expected to Keep Powering Higher 미국 경제 앞으로 상승한다

- 월스트리트 저널이 1분기에 비즈니스,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들은 내년엔 침체가 올 가능성을 29%로 낮추었다. 1월에는 그 가능성이 39%였다.
- 올 1월에 이코노미스트들은 올해 첫 분기부터 3분기까지 성장률이 평균 1% 미만일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올해 3분기에 인플레이션 조정치로 1.4%로 바닥을 치고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The Lowest Pay US Workers Will Accept for a New Job Soars 새 직장에서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최저 임금 급등

- 뉴욕연방은행에 따르면 새 직장에서 노동자들이 받아들이는 최저 임금이 데이터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개인이 직장을 바꾸려면 평균 8만1천8백불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1년 3월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서 근로자들은 1만불 적더라도 일자리를 바꿀 의향이 있었다는 것.
- 이러한 현상은 남성, 젊은 근로자, 고임금자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남성 근로자들이 수용한 최저 임금은 9만5천5백불로, 여성보다 2만9천2백불 많았다. 4년 전 팬데믹이 심할 때, 남녀 격차는 2만1천7백불이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Dollar Heads for Best Run in a Year as Fed Seen Delaying Cuts****지난 1년간 달러 계속 상승세... 금리 인하 보류 탓**

-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와 더불어 투자자들이 중동의 긴장 상태 가운데 달러로 관심을 돌리면서 달러가 지난 1년간 가장 큰 랠리를 보이고 있다.
- 오늘 화요일 현재 블룸버그 달러 스팟 지수는 5일째 상승했다. 상승 비율은 거의 2%로 작년 2월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
- 중국의 위안화 일일 기준 금리 약세 움직임도 신흥 시장의 매도 압력을 부추기고 있다.
-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1주일 전에는 7월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9월에 가서야 가능하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인플레이 지표가 계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Wall Street Strategists Say Stocks Pullback Risks Forced Selling**월가 전문가들, “주식 하락, 매도 압력 리스크 보여준다”**

- 월가의 최고 전략가들에 따르면 주식에 대한 노출이 너무 높아서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하는 경우 어떤 약세에도 대규모 매도 슬럼프가 올 수 있다.
-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비중은 지난 2년간 최고치이며,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기록적인 랠리 이후에 펀드가 주식을 개속 매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S&P 500에 5백20억불 규모의 매수 포지션이 있으며 이 중 88%가 손실 상태라며 씨티뱅크는 이를 시장의 리스크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주택]**Bloomberg: New US Home Construction Falls to Lowest Level Since August****8월 이래 미 신규주택 건축 건수 최저치 기록**

- 지난달 미국 신규주택 건설시장이 둔화됐다. 금리가 정체돼 주택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건축업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화요일 발표된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3월 주택 착공 건수는 14.7% 감소한 연간 1백32만 건으로, 지난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당 수치는 블룸버그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들의 모든 예측치보다 낮은 것이다.
- 향후의 건축 건수와 관련된, 3월 건축허가도 1백46만 건으로 감소했다.
- 단독 주택 건설은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가구 주택 착공 속도도 팬데믹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두 주택 분야에 대한 건축허가 또한 감소했다.

Bloomberg 기사

WSJ: Boomers Bought Up the Big Homes. Now They're Not Budging. 베이비부머 큰집 구입했는데 줄이지 않는다

- 베이비부머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큰 집을 구입했는데, 자녀들이 성인인 된 이후에도 큰 집을 줄이지 않고 있다.
- 현재 매물 부족, 높은 이자율, 값비싼 주택 가격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는 주택 시장에서 베이비부머는 선두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다수의 노년층은 주택 값어치가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이미 그들의 모기지를 다 갚은 상태다. 많은 이들이 더 오래 일하거나 적극적인 은퇴를 계획하고 있어 은퇴자 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 3 베드룸 이상의 주택 중 28% 정도가 60세와 78세 사이의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최근 Fannie Mae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60세 이상 미국인들은 이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WSJ 기사

[오일]

WSJ: Wall Street Is Betting OPEC+ Can Fend Off \$100 Oil 월가, "OPEC+가 유가 100달러 사태 막을 것"

- 중동에서의 전쟁 확대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월가는 유가 상승 요인으로 전쟁이 아닌, 다른 가능성에서 힌트를 찾고 있다.
- 최근 몇 년 동안 사우디 주도의 석유수출기구(OPEC)와 러시아 등의 산유국들은 하루 수백만 배럴의 석유 생산량을 줄였다. 월가의 투자들은 위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분 생산 능력(spare capacity)'에 베팅하고 있다. 즉, 해당 능력이 유가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인플레이션의 충격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이다.
- 벤치마크 국제유가는 12월 중순 이후 23% 상승하여, 최근 2023년 최고치에 근접했다. 유가 상승으로 통근비, 배송비, 농기구 운영비 등이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연방의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다.

WSJ 기사

[세계 경제]**WSJ: Global Economy Is Picking Up Steam, but Poorest Countries Are Falling Behind, IMF Says****세계 경제 회복세지만, 빈곤국들은 더욱 뒤쳐져**

- 올해 세계 경제는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화요일 IMF는 세계 경제가 2024년에 3.2%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10월의 2.9% 성장 전망에 비해 상향 조정된 것.
- 그러나 향후 몇 년 이후의 경제 전망은 그리 순조롭지 않다. IMF는 2030년까지 세계 경제가 연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예측했다. 이는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성장률보다 1%p 낮은 수치이다.
- 이러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는 부유국과 빈곤국 간의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IMF는 “팬데믹 이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선진국보다 신흥국 및 저소득 국가의 경제 성장이 더 둔화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기대수명, 불평등, 소비 등의 지표에서 빈곤국들이 더 느리게 발전할 것이라 전망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CNBC: AMD rolls out its latest chips for AI PCs as competition with Nvidia and Intel heats up****AMD, AI PC용 칩 출시 ... 엔비디아 및 인텔과의 경쟁 대응**

- 화요일 미국의 칩 설계 기업 Advanced Micro Devices가 AI PC를 작동시키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공개했다. AI PC 분야에서 엔비디아 및 인텔 등의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AMD는 랩탑용 Ryzen Pro 8040 시리즈 프로세서와 데스크탑용 Ryzen Pro 8000 시리즈 프로세서가 4나노미터 공정 기술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PC를 위한 최상위 제품이라 설명했다. 해당 프로세서는 2024년 2분기부터 HP 및 Lenovo 를 포함한 브랜드의 PC 모델을 작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CNBC 기사

CNBC: UnitedHealth beats on revenue despite impact from cyberattack

UnitedHealth, 사이버 피해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

- 화요일 UnitedHealth Group은 자회사 Change Healthcare를 향한 사이버 공격에서 비롯된 영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나은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 UnitedHealth는 작년 동기간의 9백19억 달러보다 높아진, 9백98억8천만 달러의 매출을 보고했다. 조정된 1천8억 달러의 매출은 사이버 공격의 영향을 제외한 것이다.
- 화요일 오전 UnitedHealth의 주가는 5% 이상 상승했다.
- 회사는 Change Healthcare의 서비스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C 기사

UBS "'강한 경제+인플레 고착화'에美금리 6.5%까지 오를 수도"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고착화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내년에 오히려 금리를 6.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BS는 아직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 두 차례 금리인하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까지 둔화하지 못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채권과 주식의 급격한 매도세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시장도 최근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의 최근 경제지표가 놀랄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미 정책 완화에 대한 베팅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